



RSF 타임라인

**홍콩의 언론 자유에 대해 정부가
지난 2년간 자행한 공격들**

홍콩의 언론 자유에 대해 정부가 지난 2년간 자행한 공격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4반세기가 지났다. 그런데 홍콩 행정 기본법이 2047년까지 보장한 언론 자유의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베이징은 홍콩내 중국어 매체의 일부를 장악했고 광고주를 통해 미디어를 간접 압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황은 2020년 6월 30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이라 불리는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법을 도입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이 법안 도입 이후 2년간 홍콩에서 일어난 언론 자유 변화에 대해 자세히 취재했다. 이 기간 언론 자유는 이 지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지금까지 24명 이상의 언론인과 언론 자유 옹호자들이 체포됐다. 이들중 현재 12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두 개의 독립 미디어가 정부에 의해 강제 폐쇄됐다. 이와 함께 홍콩의 행정장관은 중국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공영방송 RTHK(Radio Television Hong Kong, 라디오 텔레비전 홍콩) 같은 언론 자유의 상징을 표적으로 삼아 압박하고 있다.



© 빈과일보 / 2021년 6월 17일. 500여 명의 경찰관이 홍콩 최대 야당 신문인 빈과일보 본사를 수색하고 직원 5명을 체포했다.

4월

15일

루오 후이닝 홍콩 주재 중국 연락사무소장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안전 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은 2020년 홍콩 행정장관이 처음 채택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50만 명이 참여한 홍콩 주민들의 항의 시위로 이듬해 신속히 채택을 철회했다.

5월

19일

공영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홍콩(RTHK)이 인기 있는 시사 풍자 텔레비전 쇼 "헤드라이너"를 중단했다. 이 쇼는 2020년 2월 한 에피소드에서 홍콩 경찰을 풍자했다가, 공식 항의를 받은 바 있다.

21일

홍콩 라디오 텔레비전(RTHK) 자문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편집원칙을 감독할 "실무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 실무단에는 경영진은 물론 직원 대표도 포함되지 않았다.

28일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보안법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국가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해 중신형까지 처벌한다.

6월

10일

공영방송 RTHK의 자문위원장 유진 찬이 국가안보법의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는 선전 시리즈물 방송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18일

홍콩기자협회(HKJA)의 조사에 따르면, 현지 언론인의 98%가 국가보안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까봐 두렵다고 답했다.

24일

홍콩 외신기자클럽(FCCHK)이 국가보안법이 언론 자유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캐리 램 행정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30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법안이 실효를 갖게 했다.

國家安全法

National Security Law

保一國兩制
Preserve One Co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가보안법

©홍콩 정부. 2020년 7월 1일,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아 다양한 홍콩 군관계자들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는 현수막 옆에 도열해 있다.

2020년 6월 30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보장 법안(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의 자치권과 1984년 중영 공동선언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채 부과된 이 법은 중국 정권이 홍콩 특별행정구에 직접 개입하고 '국가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모호한 규제는 자의적인 체포를 가능하게 하고, 특히 언론인과 독립 미디어를 위협할 수 있다.

■ 해외 국가 또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부 요소와의 유착

• 홍콩에서의 법 집행:

2020년, 빈과일보 창립자인 지미 라이가 이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기사를 포함해 6명의 빈과일보 직원들이 라이와 함께 “외세와 결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은 해외 미디어, 심지어 해외 거주자가 자금을 투자한 홍콩 미디어 역시 서방 정권의 대변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전복

• 홍콩에서의 법 집행: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온 클라우드야 모와 귀네스 호과이람은 홍콩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지했다가 2021년 이 범죄 혐의로 구금됐다. 중국 정권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탐사 보도를 하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행사를 보도하거나 독립운동가의 말을 인용하는 언론인도 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 분리 독립

• 홍콩에서의 법 집행:

국가 보안법 상 홍콩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독립을 주장하는 운동을 다룬 언론인은 누구나 "분리주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아시아 뉴스 에디터인 빅터 말렛은 독립 운동가들이 참여한 홍콩 외신기자클럽(FCCHK)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았다는 이유로 2018년 홍콩에서 추방됐다. 당시 보안법이 존재했다면 말렛은 "분리 독립" 혐의로 기소되었을 것이다.

■ 테러 행위

• 홍콩에서의 법 집행:

중국 정권과 홍콩 행정관은 민주화 운동을 '테러'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시위 현장에 대한 보도는 국가보안법상 테러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에서도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외국 기자들은 "테러 지원" 혐의로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7월

7일

캐리 램 행정장관이 "홍콩의 모든 언론인들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보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100% 보장"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말했다.

14일

뉴욕타임즈가 국가보안법의 여파로 자사의 홍콩 지역 인력의 3분의 1을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즈는 자사의 언론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 대응안을 세우고 지역 내 취재 인력의 다양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홍콩 경무처가 에그에그클럽뉴스, HK골든, 벤유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미디어, PSHK미디어 등 5개 홍콩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에게 스티브 리 국가안보부 선임 경정이 참여한 기자회견장에서 퇴장을 명령했다.

8월

6일

홍콩 외신기자클럽이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언론사가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보도하는 등 이 지역의 외신 기자들이 "매우 이례적인" 비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경찰 200명이 홍콩 최대 중국어 야당 언론인 빈과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창업자 라이지미를 '외세와의 유착' 혐의로 40시간 동안 구금했다.



지미 라이

© Peter Parks / AFP

빈과일보의 설립자이자 2020 RSF 언론자유상 수상자다. 지난 30년 동안 홍콩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2020년 12월부터 구금 상태인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2건을 포함해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미 3차례의 '불법' 시위를 '조직' 및 '참여'한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앞선 몇 년간, 지미 라이와 그가 설립한 미디어는 당국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여러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8월

11일

홍콩 경찰이 빈과일보에 대한 8월 10일 압수수색을 취재하려는 로이터, AFP, AP, 스탠드 뉴스, 인미디어 등에 활동을 제한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방식의 행동"을 하지 않은 "신뢰할 만한 미디어"에게만 이 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13일

RTHK가 활동가 네이션 로의 7월 31일 인터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인터뷰는 홍콩 경찰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를 수배중이라는 미확인 정보 때문에 의회 선거가 연기됐다는 내용이다.

19일

홍콩기자협회와 RTHK 프로그램 노동조합이 RTHK의 프로그램 "헤드라이너"가 2020년 2월 14일 방송분에서 경찰을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사에 경고 입장을 전한 정부의 공보 당국에 항의했다.

25일

홍콩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온라인 독립 미디어 홍콩자유언론(HKFP)이 2015년부터 홍콩에서 근무했던 아일랜드 출신 에디터 아론 맥 니콜라스를 채용하려 하자 그의 취업비자를 이유 없이 거부했다.

9월

22일

홍콩 정부가 향후 언론 브리핑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미디어에게만 제공한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독립 언론사와 프리랜서 언론인이 배제될 수 있는 미디어 범위 대한 자세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23일

경찰의 새로운 미디어 지침에 대해 홍콩 외신기자클럽이 우려를 제기하자, 중국 외교부가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하며 영토 문제에 대해 "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7일

홍콩 공영방송 RTHK가 이군아 기자가 홍콩 정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취재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가며, 이미 3년간 유지했던 그녀의 수습 직무를 120일간 추가 연장했다.

10월

15일

국가 안보부 소속 경찰들이 빈과일보 창업자 지미 라이의 구룡반도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홍콩 구의원이 2020년 11월 시위를 취재하던 인도네시아 언론인 베비 메가 인다의 눈을 총으로 쏘 실명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의 신원을 공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월

3일

경찰이 2019년 위안룽 지역에서 일어난 폭도들의 열차 승객 및 행인 습격 당시 경찰의 방관을 집중 조명한 RTHK 다큐멘터리를 조사하다가, "허위 진술" 혐의로 프리랜서 프로듀서 초이 욱-링(일명 바오초이)을 체포했다. 그녀는 같은 날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2021년 1월에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월

1일

아이-케이블 뉴스 채널의 많은 기자들이 방송사 측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을 이유로 존경받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중 하나인 뉴스 랜싱 팀 등 40명의 동료들을 해고하자, 이에 항의하며 사임했다.

2일

지미 라이와 넥스트 디지털사의 임원 2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중 지미 라이만 보석 신청이 거부됐다.

11일

지미 라이가 국가 보안법에 따라 "외세와 결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가택연금에 달하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한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베이징과 홍콩 정부 관계자들의 압력으로 검찰은 지미 라이의 보석 허가 결정을 번복했고, 홍콩 결심 법원은 그의 구속 수감을 다시 명령했다.

2021

1월

6일

언론 자유 수호자들과 전직 언론인 클라우디아 모, 귀네스 호가 민주화운동 인사 53명과 함께 국가보안법상의 '전복 음모'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날 경찰은 지난 7월 홍콩 민주 진영 예비 경선 출마 후보 관련된 문서를 요구하며 빈과일보, 인미디어, 스탠드뉴스 등의 친민주 언론사의 보도국을 압수수색했다.

주안점



클라우디아 모

© Peter Parks / AFP

전 홍콩 의회 의원이자 언론인 출신인 클라우디아 모는 홍콩 내에서 저명한 언론 자유 옹호자다. 2021년 1월 다른 53명의 민주화 인사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상 "전복" 혐의로 체포됐다.

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입법부 의원을 지냈으며, 1986년부터 1991년까지 AFP 통신원, 이후 2005년까지 RTHK의 진행자, 2005년까지 빈과일보 및 밍 파오의 칼럼니스트였다. 2019년 그녀는 RSF와 함께 의회에서 세계언론자유지수 발표 회견을 열었다.

클라우디아 모는 2021년 2월 28일 이래 구금된 상태다. 지난 4월 그녀는 "외신과 인터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두 번째 보석 신청을 거부당했다.

2월

7일

인터넷 라디오 채널 D100 프로그램 진행자 완 위싱(일명 "긱스")이 홍콩과 중국 당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 보안법 상 "선동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의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0년 11월 21일 그와 그의 아내는 "분리 독립" 및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11일

RTHK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소수민족 처우에 대한 보도에 대한 중국 방송 규제 당국의 금지 조치에 따라 BBC 월드뉴스를 중단했다.

28일

언론자유 옹호자들과 전직 언론인 클라우드 모와 귀네스 호가 국가 보안법 상 "전복" 혐의로 기소되었고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3월

1일

홍콩 정부가 패트릭 리를 대표로 지정해 검열 시스템을 만드는 등 공영방송 RTHK를 감독한다.

주안점



© Candice Chau / 홍콩 자유 언론. 이군아 기자에게 사측이 단기 계약 갱신과 해고 중에 선택을 강조하자, RTHK 직원 노조가 그녀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홍콩(RTHK)의 감시자

패트릭 리가 RTHK의 방송 담당 디렉터로 부임한 2021년 3월 1일 이후 적어도 12편 이상의 제작물이 예고없이 방영을 중단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홍콩 커넥션"과 뉴스 토크쇼 "더 펄스"의 지난 방송분 중 200편 이상이 해당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미디어 분야 경험이 없는 패트릭 리는 자신이 방영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직원들의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위협했다.

패트릭 리의 부임 후, 팡 휘-산, 류 웨이-링, 도리스 웅 등의 제작책임자와 언론 관련 상을 수상했던 기자 이본 통 등 최소 4명의 핵심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정부 공무원들에게 강도 높은 질문을 던져서 유명해진 이군아 기자는 계약 갱신이 진행되지 않았다.

4월

7일

RTHK 경영진이 경영진의 승인을 받지 못해 방영이 되지 못한 기사를 제작한 기자들의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위협했다.

12일

미국 일간지 에폭타임스의 홍콩 인쇄소에 복면을 쓴 무장 괴한 4명이 난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인쇄 기기 등의 장비를 대형 망치로 파손했다.

16일

빈과일보 창업자 지미 라이가 "허가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그는 "외세와의 공모"라는 또 다른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2일

탐사 보도 기자 바오 초이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자와 대중을 보호하지 않은 것을 비판해 상을 받았던 RTHK 다큐멘터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매일 진행되는 광둥어 토크쇼를 시작했다. 이 토크쇼는 공영방송 RTHK를 통해 하루 4차례 방송됐다. 이를 통해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중국이 요구한 선거 개혁을 대중의 지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5월

3일

RTHK가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강도높은 질문으로 유명한 이군아 기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10일

라디오 진행자 완 이우-싱(일명 "딕스")이 5건의 돈세탁 혐의와 "선동 의도를 가진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에폭타임스 기자 사라 량이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서 낯선 사람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14일

홍콩 당국이 국가 보안법에 따라 빈과일보 창업자 지미 라이의 넥스트 디지털 주식과 그가 소유한 기업 세곳에 속한 은행 계좌 등 자산을 동결했다.

28일

지미 라이가 2019년 10월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홍콩 법원에서 재차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앞서 비슷한 혐의로 선고된 다른 두 형량에 더해졌고, 이로 인해 라이가 감옥에서 복역할 총 시간이 최대 20개월이 됐다.

6월

17일

500여 명의 경찰이 빈과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당국은 이 언론사의 자산 약 200만 유로를 동결했다. 빈과일보 편집국장 라이언 로, 최고경영자 청 김-홍, 최고운영책임자 로이스톤 차우, 부편집인 찬 푸이-만, 디지털 빈과일보 책임자 청 치-와이가 국가 보안법 상 "외세와 공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23일

빈과일보가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 고위직 체포, 빈과일보 및 모기업 넥스트디지털에 대한 정부의 자산 동결에 대해 6월 24일 폐간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중국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한 빈과일보 수석 논설위원 겸 칼럼니스트인 양 칭-키(일명 리핑)를 체포했다.

27일

'로 핑'으로 알려진 빈과일보 선임 언론인이자 영어판 편집국장인 풍 와이-콩이 영국으로 떠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빈과일보

© Anthony Wallace / AFP. 2021년 6월 18일 신문 가판대 직원들이 빈과일보를 정리하고 있다. 전날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 고위 간부를 체포했다.

1995년 창간된 빈과일보는 중국 정권의 선전에 반하는 정보를 과감히 게재하고 권위주의 정책에 비판적인 사설을 쓴 마지막 주요 중국어 매체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수년 간 정부와 친베이징 진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2021년 6월 17일에는 중국 정권이 2020년 6월부터 시행한 국가 보안법 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외세와의 공모' 혐의로 경찰 500여명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핵심 간부 5명을 체포했다. 6월 23일 넥스트 디지털 미디어 그룹 이사회는 정부의 금융자산 동결로 해당 매체가 직원과 협력업체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며 빈과일보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빈과일보는 6월 24일에 폐간됐다.

오늘날까지 빈과일보의 전직 간부 6명은 여전히 구금중이다: 최고경영자 청킴-홍, 총편집장 람 만-충, 부편집인 찬 푸이-만, 편집국장 라이언 로, 논설위원 풍 와이-콩 및 양 칭-키(이들은 각각 로 풍과 리 핑으로 알려져 있다).



© Anthony Wallace / AFP. 2021년 6월 17일 경찰이 빈과일보 본사에서 찬 푸이-만 부편집장을 체포하고 있다.

7월

15일

홍콩기자협회가 연례 보고서에서 정부로 인해 홍콩의 언론 자유가 "누더기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비난했다

21일

빈과일보의 람 만-충 전편집장이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국가 보안법 상 '외세와의 결탁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8월

3일

홍콩의 디지털 미디어인 인티움 미디어가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언론사가 해외로 이전한 첫 번째 사례다.

9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공영방송인 RTHK는 국영 중국 미디어 그룹(CMG)과 제휴해 홍콩에서 "더 큰 애국심을 고취할 것"고 말했다.

9월

29일

공영방송 RTHK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정부를 지지하라"는 새로운 편집 지침을 채택했다. 또한 홍콩 행정부와 중국 정부에 대한 "증오, 차별 또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심화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외국 정부 또는 정치 단체"와 접촉을 피하라"고 기자들에게 주문했다

10월

1일

홍콩의 베테랑 온라인 매체인 스탠드 뉴스와 시티즌 뉴스의 기자들이 중국 국경절 기념 행사에 취재를 차단당했다.

19일

2019년 민주화시위 당시 경찰이 언론인에게 저지른 폭력과 관련해 고소한 27건 중 26건을 홍콩 경찰이 기각했다고 홍콩기자협회가 밝혔다.

11월

4일

언론 상을 받은 바 있는 온라인 미디어 DB 채널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운영을 중단했다. 프랭키 펑 공동 창업자는 국가 보안법 상 '전복 음모' 혐의로 2021년 2월부터 구금된 상태고,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우 진은 2021년 5월 개인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대만으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5일

홍콩 외신기자클럽 조사 결과, 외신 기자의 84%가 국가 보안법 도입 이후 취재 환경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약 50%는 언론 자유가 감소했기에 출국을 고려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12일

홍콩 이민 당국이 수-린 왕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의 취업 비자 갱신을 설명도 없이 거부했다.

25일

홍콩 법원이 공영방송 RTHK에 대한 홍콩의 통신 규제 당국의 결정을 일부 지지하며, 풍자 프로그램 "헤드라이너"가 부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12월

13일

언론 자유 옹호자 지미 라이와 귀네스 호는 2020년 홍콩에서 금지된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각각 징역 13개월과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8일

홍콩 검찰이 국가 보안법에 따라 지미 라이와 빈과일보 전 간부 6명을 "선동적인 출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9일

독립 온라인 매체 스탠드 뉴스가 경찰의 압수수색 및 전현직 간부 6명체포 이후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같은 날 홍콩기자협회장이자 스탠드 뉴스 부편집장인 론손 찬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스탠드 뉴스

© Tyrone Siu / REUTERS. 경찰이 스탠드 뉴스 편집장 패트릭 램을 체포하고 있다.

스탠드 뉴스는 2014년 12월 홍콩에 본사를 설립한 비영리 중국어 뉴스 사이트였다. 홍콩의 사회 및 정치 문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보도로 잘 알려져 있었고, 국가 보안법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2021년 RSF 언론자유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빈과일보 및 넥스트 디지털 그룹이 해체된 지 꼭 6개월 만인 12월 29일 오전 스탠드 뉴스 사옥은 경찰 200여 명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전현직 간부 6명이 '선동적인 출판을 위한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경찰 국가안전부에 체포됐다. 이러한 혐의는 식민지 시절부터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최고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편집장 패트릭 램과 청 푸이-쿠엔은 보석을 거부당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금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스탠드 뉴스는 정부가 자산을 동결했기에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해고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2022

1월

3일

2017년 창간된 중국어권 비영리·독립 온라인 미디어 시티즌 뉴스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미디어 환경의 악화'와 '직원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폐간을 선언했다.

4일

온라인 미디어 매드 도그 데일리가 법적 위협과 직원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다.

12일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반역, 분리 독립, 폭동 선동, 전복과 관련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 보안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홍콩 노동조합등기국(RTU)이 홍콩기자협회에게 그들이 개최한 특정 행사가 조합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에 대한 소명과 협회에서 소셜 미디어에 올린 일부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 탕 장관은 홍콩기자협회가 학생 기자를 회원으로 "유인해" 대학 캠퍼스에 "침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월

7일

23개국이 참여한 미디어 자유 연합이 언론 자유에 대한 홍콩과 중국 본토 당국의 공격과 홍콩 내 독립 미디어 탄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4일

홍콩의 여러 인터넷 기업들이 구속된 홍콩 기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언론 자유 캠페인을 개시한 영국 NGO 홍콩 위치의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3월

1일

중국어 비영리 및 독립 온라인 미디어, 로컬 프레스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운영을 중단했다.

14일

홍콩 경찰 국가 안보국이 구금된 홍콩 기자들의 석방을 요구한 홍콩 위치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이 판단한 웹사이트 삭제를 공식 요구했다.

4월

11일

지금은 사라진 독립 미디어 스탠드 뉴스의 베테랑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인 앨런 오가 홍콩에 있는 자택에서 "선동적인 출판을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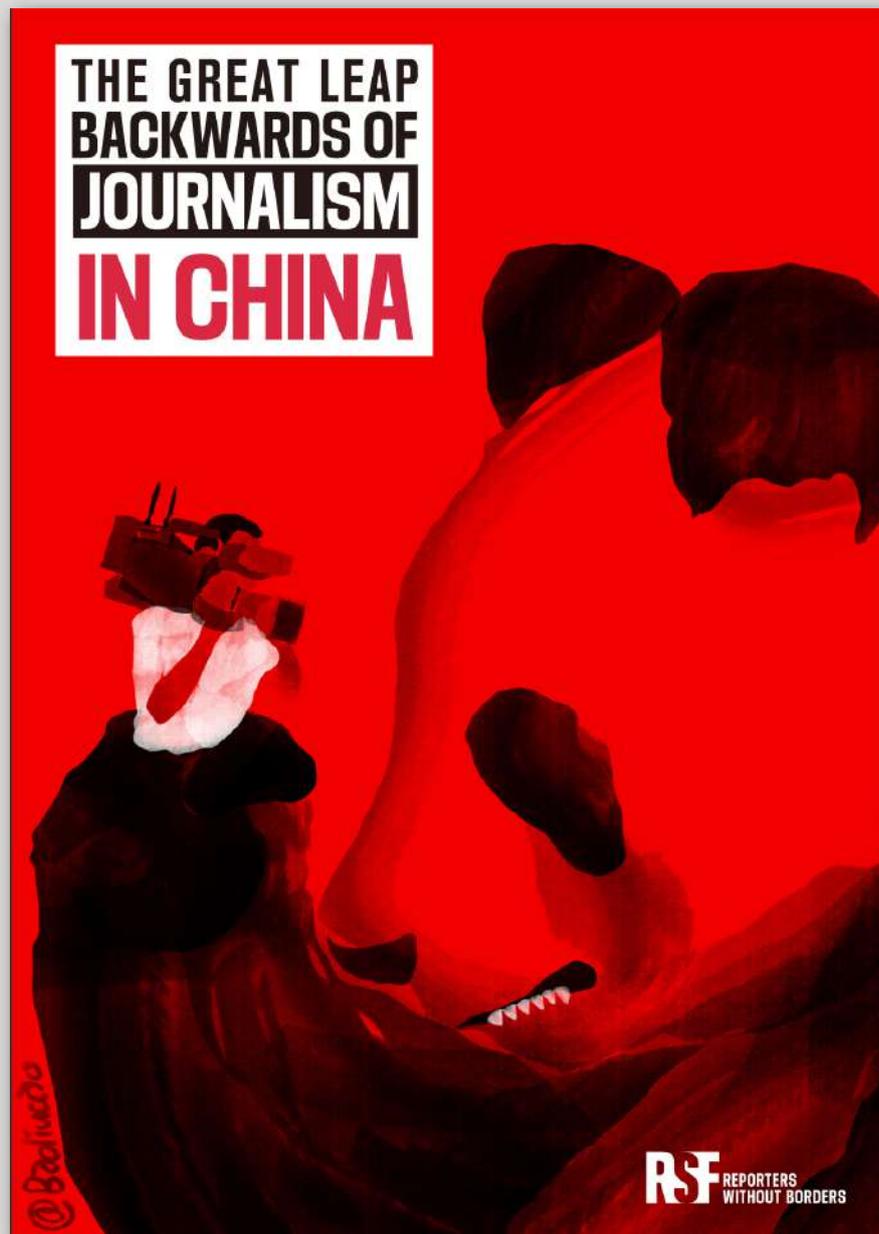
20일

현 시점까지, 빈과일보 및 스탠드 뉴스 고위 간부를 포함한 13명의 언론인 및 언론 자유 옹호자들이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 지역 내 코로나19 사태로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 보고서

중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

2022년 12월에 발표된 '중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국의 국제적 약속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82페이지 분량의 안타까운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중국 내 언론인과 외신기자에 대한 정권의 탄압 수단 및 한때 언론 자유의 모델로 여겨졌던 홍콩의 언론 자유의 악화를 상세하게 다룬다. 또한 정보에 대한 통제를 자국 국경 밖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살피며, 중국 정부 및 외국 정부, 국제 기관, 언론인, 언론 매체를 향한 호소 및 권고를 밝힌다.



©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번체자 등 12개 언어로 만들어진 보고서는 RSF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링크: <https://bit.ly/3La93cv>

RSF 국경없는기자회

국경없는 기자회는 전세계에서 자유와 다원주의, 저널리즘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증진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4개 국제 지부와 130개 국가 특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UN 및 UNESCO의 자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 베는 연 / AFP. 빈과일보 창업자 지미 라이가 “외세와의 유착”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

INTERNATIONAL SECRETARIAT - CS 90247 - 75083 PARIS
CEDEX 02 TÉL.+33144838484
WWW.RSF.ORG